

■ (언론 동향) 2022.7.25. “농민신문” 보도

○ “무기질비료 인상분 지원 내년에도 계속해야”

- 올해 정부와 농협 도움으로
- 농가 영농비 부담 크게 줄어
- 치솟는 물가안정에 큰 기여
- 생산자단체 “사업 지속해야”

경기 안성시 공도읍 건천리 이장 이봉균씨(70)는 중학교를 졸업한 이후 한평생 쌀농사를 짓고 있다. 20일 서안성농협 자재센터에서 만난 이씨는 해가 갈수록 영농환경이 어려워지는 것 같으며 내년 농사에 대한 걱정을 쏟아냈다. 그는 “쌀 가격이 하락한 가운데 무기질비료를 비롯한 농자재 가격은 2배 정도 올랐다”며 “올해는 다행히 정부와 농협에서 비료 가격을 지원해 비용 부담이 크지 않았지만 내년에 지원이 줄거나 없어진다면 어떻게 농사를 지을지 막막하다”고 하소연했다.

무기질비료 가격 지원이 농가들의 영농비 절감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올해 임시방편으로 마련한 지원책이라 영농과 물가안정을 위해 내년에는 정부 예산에 포함시켜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

정부는 올해 비료값이 크게 오르자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해 농가 부담을 완화했다. 국비·지방비·농협 지원으로 지난해 대비 인상액의 80%를 보전하는 방식이다.

4803억원을 들여 지원한 비료값 인상차액은 영농비 절감뿐만 아니라 물가안정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농협경제연구소 농정연구팀 분석에 따르면 비료값 인상분 80% 지원을 통해 농가당 평균 경영비 46만원 절감 효과가 발생했다. 물가 파급효과 분석모형을 적용하면 가계비 부담 1조9182억원을 낮추는 간접 효과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이씨의 경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맞춤형 비료의 올해 가격은 20kg당 2만1600원으로 지난해 1만550원에 비해 2배 이상 올랐다. 하지만 인상분의 80%(8850원, 50원 단위 지원)를 지원받으며 1만2750원에 비료를 구입할 수 있었다.

김용필 서안성농협 공도중앙지점 과장대리는 “쌀농가뿐만 아니라 1년에 4~6작기 농사를 짓는 시설농가들도 비료비 부담이 크다”며 “식량산업인 농업을 지키기 위해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정 동향/주요 이슈

2022. 7. 25.(월)

이런 목소리는 생산자단체뿐만 아니라 학계·비료업체를 가리지 않고 나오고 있다. 농협경제지주는 19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3층 소회의실에서 생산자단체·학계·비료업체 관계자가 참여하는 ‘비료공급 자문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농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해 내년에도 무기질비료 가격 지원이 지속되도록 예산당국을 설득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서용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가격 상승을 단기적인 현상으로 보지 말고 내년, 5년 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이 필요하다”며 “농업계가 힘을 모아 기재부·국회를 대상으로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요셉 (주)팜한농 비료사업담당은 “당분간 비료 원자재 수급상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 정책에 따라 비료시장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올해 했던 지원사업을 연속성을 가지고 계속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용복 경상대학교 환경생명화학과 교수는 “식량안보를 위해선 적정 수준의 무기질비료 사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의 비용 지원이 농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 장재혁 기자 >